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대표가 8일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 '사업 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재해시 최단시간 기업 정상화 능력 재인증 심사 통해 지속적 점검·관리

한미약품그룹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위기관리 및 대응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8일 영국계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ISO 22301은 2012년 5월 국제표준화기관(ISO)에 의해 발효된 국제 표준으로,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으로 예상치 못하게 업무가 중단될 경우 최단시간 내 기업활동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ISO 22301 인증은 제조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약품그룹은 제조공정(공장)은 물론 일반 업무 분야까지 인증 범위를 넓혔다.

한미약품그룹은 팔탄스마트플랜트, 평택바이오플랜트, 세파플랜트, 연구센터와 서울 본사에 이르는 전 사업장의 업무 및 공정 분야를 세분화해 예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사전 최소화 및 돌발 상황 신속 대응, 업무 복구 프로세스 등의 토탈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내부 진단, 실적자료 제출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서

류, 현장 인증심사 등을 거쳐 인증을 획득했으며, 매년 사후 심사 및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사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22301) 인증을 받은 국내 제약업체는 한미약품이 유일하며, 바이오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에 받았다.

이번 인증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최다인 총 7개의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하게 됐다. 한미약품그룹 전체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정보보안 국제표준(ISO 27001),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을 받았으며, 팔탄·평택 플랜트와 연구센터, 한미정밀화학, 북경 한미약품이 받은 인증으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종(ISO 45001, OHSAS 18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등이 있다.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 위기 관리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한미약품의 위기극복 능력과 의약품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지역응급센터 지정... 중증진료 적합

올해부터 2년간

이대서울병원이 9일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는 서울 지역구 중 2번째로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지역 내 대규모 재난 대응에 취약했다. 이번에 최신 시설과 우수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대서울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대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 의학과 의료진과 임상과 당직의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치료의 골든타임에 중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다.

또 멀리 있는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



이대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모습

해 이대서울병원 옥상에는 닥터헬기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염환자 및 감염 의심 환자 전용 출입구와 치료 시설을 갖추는 등 다양한 응급 환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난 상황에 따른 대규모 환자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주변 복도에 각종 의료가스 설비를 설치했으며, 병원 외 재난에 참여할 의료팀 구성, 지역 내 응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재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달콤함에 추위 사르르... 겨울 음료

겨울간식 고구마에 딱 '스프라이트' 건강한 단맛 '호박고구마맛 우유' 든든한 한끼 손색없는 '벨런스밀' 레몬, 오렌지등으로 만든 '뱅쇼'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식음료업계는 겨울철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다양한 겨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겨울 대표 간식은 군고구마와 군밤, 만두, 찜빵, 어묵 등이 있다. 아울러 겨울 입맛 돋우는 맛있는 음식에 상쾌함을 곁들일 수 있는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제품도 찾게 된다. 겨울철 대표 건강 간식인 고구마를 더한 제품부터 추운 날씨도 견뎌낼 만큼 한입만 먹어도 입안 가득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까지 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겨울에도 상쾌한 탄산으로 느끼한 서양식, 담백한 한식, 이색적인 퓨전 한식, 달콤한 겨울 간식 고구마, 호빵 등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환상적인 맛의 케미 자랑하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가 있다.

스프라이트는 최근 'Sprite & Meal' 캠페인을 통해 상쾌한 스프라이트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쿨하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건강한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고구마를 더한 제품이 인기다. 빙그레



잠바주스 겨울 시즌 음료 3종 /SPC그룹

는 다섯 번째 한정판으로 달콤한 고구마의 맛을 구현한 '호박고구마맛 우유'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바나나맛 우유의 시그니처 단지 모양 용기를 사용해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 제품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도 호박고구마의 고소한 풍미를 살린 신제품 '서울우유 호박고구마'를 출시했다. 서울우유 호박고구마는 'K-밀크' 인증을 받은 서울우유 1등급 A원유에 국내산 호박고구마 페이스를 듬뿍 담은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통곡물 간편대용식 제품 '벨런스밀'을 선보였다. 용기 안에 6가지 통곡물 등의 분말을 담아 물만 부으면 간편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귀리, 바나나, 고구마, 견과 등 네 가지 종류다. 현미, 보리, 귀리, 콩, 조, 수수 등 6



딸기 메뉴 5종 /드롭탑

가지 통곡물을 주원료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식감과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놀라와 현미칩 등을 추가했다.

과일 원료 활용한 제품도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잠바주스는 트로피컬티, 오렌지, 코코넛 밀크 등을 활용한 겨울 시즌 음료 3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는 열대과일이 블렌딩 된 히비스커스 트로피컬 티에 오렌지, 레몬 등을 혼합해 만든 '캘리포니아 뱅쇼' 등 3종이다.

카페 드롭탑은 겨울 딸기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딸기 시즌 음료 5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는 겨울철 인기가 많은 딸기 음료를 취향에 따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특히 드롭탑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딸기 베이스를 활용해 기존 딸기 메뉴보다 상큼한 맛과 향이 돋보인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정부, 난임부부 최대 110만원 지원

(2인 월소득 538만원 이하)

건보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일부 올해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이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2인의 월소득이 538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

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110만원을 받게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다소 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세경 기자 seille@

대웅제약 JP모건헬스케어에서 신약개발 로드맵 공유

대웅제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외진출 전략과 신약 개발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

간) 미국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과 연구, 글로벌 부문의 주요 직책자가 참석한다. 대웅제약은 신흥국에서 급성장 중인 기업을 소개하는 '이머징 마켓 트랙'에서 전승호 사장이 글로벌 전략과 R&D 비전을 제시한다.

전승호 사장은 2020년 주요 신약 개발 현황과 계획을 비롯해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영국 '아바타'와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 체결 등 R&D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보툴리눔 독신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 본격 진출하는 캐거를 이룬 '나보타'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함께 선진국 치료 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한다.

/이세경 기자